

피동자의 능동변

「학력사항」

- 동아대학교 법대 졸업(법학 학사)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졸업(법학 석사)
- 동아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경력사항」

- 제4회(1965년)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 법원장
-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부산법원조정센터 센터장
- 부산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 무 제

I. 글 머리에

고시라는 이름의 강을 건너 보려고 바동 대다가 요행히 그 강을 메울듯한 수험생의 인파에 끼어 강둑에 구조되었다.

머리 속에 꽉 박힌 철저한 피동의 느낌을 씹으면서 다시 물결이 이는 그 강을 들여다 본다.

합격기를 안 쓰겠다고 조그만 선언에다가 기피까지 불사했던 내가 스스로 그뻘 그 때라고 변명과 뉘두리를 해 볼 맘이 살아 났나 보다.

그러다 보니 때 늦고 퇴색해 버린 방향 잃은 변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대로 나의 이 졸문(拙文)을 읽고 싶다면 몇몇 친구나 수험 동지 여러분에게 고백의 장을 공개하려고 한다.

II. 전 시대

가히 주경야독의 노력으로 가르치며 배우겠노라고 교단 위에서 교단 아래로 종일 쏘다니던 사범(師範) 졸업의 해, 밤이면 어떠냐고 눈 아픈 전등불 밑에서 문학원론을 공감도 없이 읽던 야간대학 국문과의 그 몇 달은 아예 스스로 이 루비콘 강에 들어설 생각은 없었다.

사회의 참맛이라는 매서운 일침이 따끔하게 찔려 오기까지는 연약과 감상이 문학의 진수인양 방향조차 모호히 그린채 흘러가고 있었다고 기억된다.

그 해 군사혁명이 나고, 어떤 변혁이 구석구석 밀려 들었다.

조그만 만족은 그날그날 취할 수 있었던 나의 위치에도 분명히 하나의 계기가 과감히도 찾아 들었었다.

교직을 하직하고 나니 현실문제에 연약해만 보이던 그 때의 처지가 반사적으로 빵의 학문을 구하려 이 강을 엿보게끔 만들었으리라.

다음 해 3월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학적을 두고 있던 동아대에서 법학과로 전과하여 물결이 거센 이 강 위에서 대망의 저쪽 언덕을 향한 방향을 잡기로 하였다.

대학 2년!

2학년에 법과로는 옮겼지만 마음만으로는 단 한 발도 옮겨 갈 수도 없었다. 그 해의 1년을 경계와 시간과 건강의 약조건으로 사뭇 사면초가의 경지에서 권리·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고시 수험생이란게 법률서적 하나 푹푹히 가질 수 없는 처지에서 지냈다.

입주 아르바이트나 몰두하면서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나하고 자책했으나 그 때마다 그런 의문의 해답은 하나도 찾아 낼 수 없이 허송한 시간들...

스스로에 대한 모멸의 쾌감이나 맛 보면서 얼마만한 수모와 고통과 이에 비례하는 자책을 되풀이 했던가.

금강석은 때릴수록 더 값나게 된다지만 인간이란 이렇게 압박과 긴장과 처참 속에서만 살면서도 인격을 말하고 또 그 도야를 믿어야 하는 것이었을까?

III. 등 정

3학년에 오르자 그런 생활로 더 이상 나를 황폐해지는채 내버려 두고는 지낼 수 없었다.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민법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그 사이 민법총칙 만을 주력하여 2~3개월 집착한 덕분에 훨씬 스피디하게 다른 과목을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없는 책은 도서관의 신세를 지면서 약작같이 이해 본위로 읽었기에 2학기가 거의 다 갈 무렵이 되어서도 겨우 물권편과 채권총칙 일부 및 형법총론을 좀 보았다는 느낌 뿐이고, 이래서는 언제 나아가리 할 만큼 아득하였다.

그런 가운데도 잊지 못할 일들은 없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니 그 어디 쯤이었던가 아르바이트에서의 귀로(歸路)에서 나도 모르게 가로등 아래에서 광인(狂人)처럼 민법 조문을 읽

고 서 있던 일, 그래서 매일 검은 하늘에 뿌려진 별들을 이어 보면서 그같이 쉽게도 피안(彼岸)의 푸르른 날개에 나를 태워보며 내일을 다짐하던 날, 부산항의 야경은 어느 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장학생이 되어야 하는 절박성과 그를 위한 A학점 취득의 평행적 수고라던가, 알듯 말듯하다가도 모르는 법문(法文) 선이해 후암기라는 합격기에서 얻어 들은 철칙을 고수하고픈 고집, 돌볼 겨를 없는 시력과 건강에의 걱정, 힘든 경제난, 목표에의 도달 가능성이 희박해짐에서 오는 불안, 주위 사람들의 눈초리 등 이런 것들에 휩싸여 고전하는 동안 세월은 녹음을 주위에 칠해 놓고는 또 한 학기를 달고 가버렸다.

이번 학기에 벌여 놓은 결산이란 제1회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의 합격 뿐이었다.

외계의 사정은 갈수록 나에게 외면하였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관하자던 다짐도 어느새 헛겁게 풀려려 하고, 내심에서부터 의지가 무너지는 듯한 괴로움이 주기적으로 엄습하였다.

이런 역경에서도 끊임 없이 보내온 심우(心友) P와 K의 뜨거운 응원은 나에게 끊기지 않을 힘을 불어 넣어 주었고, 보답을 위한 내일을 다짐할 기백을 주었다.

소음과 더위에 쌓여 법서와 겨우 형식적으로만 씩름하던 그 여름 어느날 P의 주선으로 시원한 D암자에서의 얼마 동안 나는 처음으로 민법·형법 전권을 마음놓고 읽을 여유를 갖게 되었다.

산 높은 그 곳의 시원함이나, 밤이면 절 마당까지 와서 우는 산 승냥이의 기억이 어떤 발 아래 깔리던 안개의 기억과 더불어 잊혀지지 않거니와, 그 때 P의 격려란 나에게 큰 기반을 닦게 한 것이리라. 아니 그런 뒷받침이 없었던들 오늘 내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방학이 끝나자 모든 외적 활동을 내던지고, 학교 강의는 전폐하고, 더운 돌집 도서관에서, 손시린 텅빈 강의실에서, 일요일의 어느 외판집에서나 혼잡한 전자 속에서, 사람 없는 곳만 피해다니며 최대한으로 몰입해 보았다.

그러나 항상 나약한 인간인지 주기적인 권태의 내습과 못가질 참고서와 법률잡지에의 매력이나, 거주지가 먼 곳에서 오는 시간낭비 이런 것을 억지로 참아가는 매일의 끝에는 때늦은 저녁밥과 회의가 어둠과 함께 도사리고 있었고, 집안사정으로 일찍 도서관에서 물러나와야 했던 날 교문을 나서면서 올려본 2층 도서관의 나열된 전구의 광선은 더 눈부시어 합격에의 지름길에서 나만 제껴 놓는 것 같기도 했다.

대학 졸업반 1964년!

그 다음 해에 들어섰으나 조금의 빈틈 없이 짜놓았던 스케줄은 현실이란 이런거란 듯이 짝 무너져 버렸다.

두 달여 동안 민법을 한 번 더 읽었을 뿐이고, 집안 일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던 한 달을 더 낭비하고 보니 당황은 점차 극해 갔다.

3월이 되자 학교 일을 급우 L에게 부탁하고 책만 싸가지고 진주에 틀어 박혀버렸다. 꼭 같은 날이 있을 뿐인 활자의 구성과 분석의 세계 속에서 이윽고 7월이 되었다.

그간 틈을 놓치지 않고 읽었던 보람으로 매과목 4~5회독은 되어 있었다.

부산에서 제3회 사시 1차시험을 보고는 약간 안심된 마음으로 계속 2차를 위한 무리를 하

고 있었다. 문제를 뿔아 읽으며 2차 시험을 불려했으나 건강은 이 때에 엉망이 되었다. 단축을 거듭한 수면시간과 소화불량은 즉각 신경을 건드려 놓아 찬밥은 먹을 수도 없었다. 책은 아예 염두도 못할 정도였으니...

덕분에 1차 합격은 친구가 뜯어온 신문조각에서 알았으나 누구에게진 모르는 분함과 우울을 삼키며 몇몇 동지의 분전만 바라면서 집에 누워버린채 2차 응시는 단념치 않을 수 없었다.

건강이여 넌 누구에게만 따르는가?

제3회 사법시험의 단 10명의 합격자의 배출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응시하지 못한데 대한 위로도 되었다. 3회 사법시험에順利대로 응시할 수 있었다라든가 과연 내가 합격했을 것인가 하고 자문과 채찍질을 가하면서 제4회의 사법시험에 필살의 일탄을 적중시킬 것을 맹세하였다.

자꾸만 질주하는 시간은 9월 중순에다 나를 밀어 놓았고, 제4회 사법시험 요강이 공고되었다. 이 수험생을 떨게 하는 공고는 사법시험령의 개정과 함께 나에게 또 하나의 고심할 거리를 만들어다 주었다. 애초의 사법시험령의 내용으로는 1965년부터는 제2차 논문식 고사에는 선택과목 없이 7법으로 되어 있었다. 예년의 관례도 동 시험의 제2차 시험이 1965년 1월경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나는 이런 엉뚱한 결과에 크게 당황하였다. 제2 선택과목은 바로 합격의 관건이란걸 익히 들어왔던 때문에 7법으로 응시함은 불리함이 뻔하였다. 그러나 이제 피할 수 없이 닥쳐온 3개월 후의 승부, 어쩔 수 없이 7법에 도전하기로 하고, 내 판엔 Hamlet의 일절을 인용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라고 책상 앞에다가 비장한 환경 정리를 해 두었다.

비록 '사법시험(司法試驗)'이 '사법시험(死法試驗)'이 된다 해도 남따라 죽는 시늉이라도 내어보자. 똑같은 인간이 창안해 낸 고시제도에 인간이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9월 말부터 시작된 이 최후의 집중공세는 12월 중순의 시험기까지 계속되었고, 격일로 각 성제의 복용으로 하루 3~4시간의 잠과 식사시간 외에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다.

서브노트를 안해서 매우 걱정되었으나 중요한 문제마다 답안 1개의 작성연습은 잊지 않았다.

IV. 최초이자 최후의 결전

기다려지면서도 두렵던 12월 15일!

아나똥의 장기 복용으로 헬쑥한 몸으로 13일 상경했을 때까지도 승산은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처음 계획으로는 시험기간 4일 동안은 철야하여 배겨내기도 했으나 다음 2일은 좀 잤다.

제2 선택과목에서 득점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는지라 한 과목이라도 큰 실패를 헤서는 절망이었다. 대체로 무난히 치른 것 같기도 했으나 첫 날 헌법시간에서의 당황함과 시험 도중 몹시 난처한 문제만 쏟아져 나온 민법과 행정법의 두 과목은 완전히 사기저하에 주효했다.

민법의 방대한 범위와 수험생의 꺼림 등을 역이용하여 득점을 좋게 해보려고 뜻하였던 나의 시도는 산산이 깨어지고 오히려 뒷 날 알게 된 바이지만 그 과목이 85.75로써 전과목 중 최하로 점수가 나뻐다.

답안은 되도록 많이 썼고(평균 7면), 서설은 풍부히 써서 채점위원에게 인상을 그릇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19일, 상법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오니 12시 정각!

아직 다른 수험생은 내일의 준비에 바빴다. 시험 감독관의 선택과목에 대한 걱정도 아랑곳 없이 맨먼저 중앙대학 교문을 나서는 내 심중은 그 때 만든 기대감에 꽂 차 있었다.

기숙사에 들어와 잘 생각해보니 좀 부족했던 것은 민법의 '변제자대위', 행정법의 '행정소송의 특수성' 등이었으나 과락선은 아닐 것 같았다.

V. 성취

응시 이후의 흐뭇한 느낌은 크리스마스의 흥청거림이 지나고 1월, 또 이어 2월에 들어 대학을 졸업할 무렵까지는 급강하의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해 갔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되풀이 되는 기대와 불안의 순환이여.

그러나 그 날 2월 15일.

정오부터 나올 것 같으면서도 안나오던 뉴스는 저녁무렵이 되어서야 신문사의 속보판 앞에서 한 순간의 찡하는 감격과, 미리 다짐했던 감정의 여념을 싣고 올려왔다.

다만, 그 때만이 있었으면 좋았고, 22명의 적은 숫자쯤은 패념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지나간 허다한 시간을 낭만과 대학생들의 풍부함 따위에서의 외면과, 인간 사립에서의 소외와, 본의 아니게 나의 지인(知人)들에 대한 이단을 자초함에 던져버린데 대한 간소한 대가라고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나, 스스로 택한 준비기간 중의 감정억제와 회귀함이 없는 귀중한 대학시절의 허송에 비하여 이것은 어떤 균형을 취하며 내 앞에 다가서는 것이냐?

한 즐기 서운함이 가슴을 스치지만 큰 떡일량 다 놓쳐버린 한 마리의 맹수의 심사처럼 겨우 남은 이 노획물이나마 꼬옥 움켜쥐고, 나는 지금부터 너 속에서 새로운 발전의 씨앗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VI. 신념 · 방법 기타

1. 정신의 무장

아무리 잘 그어도 곡선은 동일한 두 점 사이의 직선보다도 길게 마련이다.

목표를 정한 자신의 의지가 흔들릴 때, 그것은 곡선과 같이 목표에 도달함이 늦다. 즐기 찬 끈기, 그것은 최대의 힘이다. 곤경에 닥칠 때마다 스스로를 훈계할 명언을 외우면서 목표를 위한 노력에서 조금이라도 적게 동요하게끔 애써야 한다.

그러므로 기회가 무르익거던 집중적으로 맹타해야만 간신히 넘어 갈 정도의 강한 적수임

을 잘 인식하되, 기필코 꺾고 말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가갈 때 이미 여러분은 정신적 자세에 있어서 합격의 전령사를 맞을 준비가 된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언젠가 만나서 마음의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화두를 주고 받았던 독학하던 모(某)씨를 본 이후, 특히나 직장에서 또는 혼자서 곤경에 쌓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경건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당신들의 강한 집착을 그 어느 조건을 잘 갖춘 사람보다 진귀한 무기로 알고, 피안애의 노저음을 더 재촉하시라. 그 어느날 마침내 바라던 언덕에 도달한 당신은 만족한 환상의 메아리를 되살려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결심은 당신의 준비기간을 '짧게 질게' 쌓음으로써 맺어 짐에 충분할 것이다.

2. 선 이해 후 암기

선이해 후암기의 방법을 고수하도록 애쓰자. 그것은 가장 더딘 것 같으나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

피상적인 '몇 회독'이나 '정독'여부의 논란은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닐까?

그것은 천차만별한 수험생의 위치에 일률적인 자(척)의 사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시험직전의 집중

내 경험으로는 시험기일에 가까울수록 그 시간은 더 중요하고 또 능률이 더 오른다.

이 때에는 쉬어버릴 것이 아니라 최종적 노력으로 잠을 억제하고자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안도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건강과의 조화가 문제되겠지만 막상 극에 달한 경우에는 쓰러진다는 정도가 아니면 평소 이상의 지탱할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다만, 최소한의 신경안정을 위해서 휴식시간의 활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4. 글씨연습과 답안작성연습

서브 노트를 정밀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개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심한 것 같고, 나는 여러번 시도해도 실패하였다.

모의답안의 구성사례는 잘 읽어두고, 잡지에서서의 논점을 주의하여 익혀두는 것은 더 좋은 득점을 위해서 불가결이다.

법전을 시험장에서 보여주더라도 조문의 암기는 필요한 것이며, 막상 부딪히면 조문 찾기에 당황해질 우려가 있다. 답안에서의 조문 인용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5. 득점과목

헌법·민사소송법·상법은 득점과목으로 적당하다. 더구나 앞으로 7법을 치르자면 한 과목도 과락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점수가 고르게 되어야 좋을 것이다.

철저한 연구에서 조화된 답안으로 이런 과목에서 득점의 기회를 노려야 한다. 민법은 요즘 출제의 경향이 보편적·일반적인 문제로 기울어 지는 것 같으므로 중점주의는 피할 것이며, 행정법은 어디까지나 이해본위로 하는 것 만이 합격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6. 답안작성의 요령

구체적인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어떤 공식적인 연마가 필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설에 있어서 제도의 존재의의라던지, 비교적 유사한 제도와의 관계라던가, 사적 입법의 고찰은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답안의 윤곽을 밝혀줌으로써 채점위원에게 신뢰감을 줄 것이다. 답안의 체재라던가 하는, 좀 사소한 문제에까지라도 관심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수백매의 답안지를 읽어나가는 채점위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할 문제인 까닭이다. 읽어서 권태로움이 가질 수 있는 시원한 답안, 이것을 요구하면서 그분들이 읽어 가고 있다고 염두해 두면서 답안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당신은 좋은 답안을 쓸 것이다.

Ⅶ. 맺으면서

벌써 몇 개월 전으로 지나간 수험시절을 토로하는 것은 감회를 금하기 어려운 일인가 보다. 그러나 이런 위치에나마 서게 되기까지는 나의 미력은 너무나 많지도 나를 이끌어 주신 여러분께 힘입었다. 다만, 이런 여러분의 혜택에 의하여 나는 그때 그대에 조성된 계기에 피동적으로 끌려 온 느낌이 짙다.

이미 나이가 많음에도 그저 평범한 남자의 능력을 훨씬 넘는 어머니가 나의 합격에 바치신 고생은, 나의 합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따를 수 있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족하시었고, 준비기간 중 항상 보살핀 형님들...

오히려 우연이랄 수 있는 나의 합격에는 나보다도 그 분들의 강령하고도 원망(願望)어린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

또 대학 4년 동안의 학구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온갖 힘을 쓰신 자형·누님들에 의하여 나의 하찮은 법학은 이어졌고, 모교의 원조는 큰 힘이 되었다. 나를 음양으로 도와준 여러 벗과 항상 격려해 준 '사봉회'제형들의 조력을 다 표현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이며, 끝으로 아직도 일직선으로 정점을 향한 발돋움에 힘쓰시는 동지 제형의 영광을 빌 뿐이다.